

업체취재 / (주) 로움코리아



안전환경 조성으로 높은 생산성 기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요람이요 국가 경제발전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출산업 구로공업단지에는 오늘도 23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힘찬 전진의 고동소리와 함께 기술한국을 상징하듯 하얀 연기를 실새 없이 뿜어내고 있다.

이들 업체중에는 1972년 7월에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13년간 조업을 계속하면서도 무재해 무사고의 놀라운 기록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견실한 업체가 있다.

이 공장이 바로 모범방재업체로서 구로구 가리봉동 371-11번지 수출산업공단 제3단지에서 전자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움코리아이다.

이 회사는 900여명의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공장건물로서 연면적 6,071.26㎡ 규모의 건물에는 법정기준에 따라 각종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그리고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이르기 까지 고루 설치했거나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취재/宋永基 <홍보부>

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방화관리체제 및 활동

반도체 및 저항기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열기, 알콜, 신나등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총무부장, 그리고 각부 책임자 8명을 위원으로한 방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가 소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소방대상물의 구조 및 피난시설, 직장민방위대 설치, 소방시설의 개선강화, 화재예방상 필요한 교육등 방화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평소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 동에 방화책임자와 각 실에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는 외에도 건축물 화기사용설비기구, 위험물시설등 10개항의 점검반을 별도로 편성 화재방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또한 자체소방계획에 의한 각종 화재예방점검과 검사를 분기 및 반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시정토록 하고 있을뿐 아니라 각 공장별 안전주변제를 채택, 순번제로 방화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전사적이 고도 주도면밀한 방화관리체제를 확립, 시행하고 있다.

■ 교육훈련 및 계몽

로움코리아의 방화교육훈련은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통보연락, 피난유도, 소화, 경계, 구호활동등 방어훈련과 민방위 및 종업원에 대한 정신교육, 소방시설작동및 사용방법등 종합적인 방화교육훈련이 연간계획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비치, 금연등 방화안전 행동지침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배부하고 사내 행사로 표어·포스터 등을 모집, 시상함으로써 방화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방화강연회와 연구토론회 등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로움코리아를 이끌어가는 沈柱燮사장의 경영관은 펍 단조로우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하게 풍긴다.

모든 기업들이 「인화단결」, 「능력향상」 등의 사훈을 제각기 정하고 있는데 비해 沈사장의 기업운영방침은 한마디로 「안전제일」이라고 한다.

이는 곧 안전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만 불안한 요소가 없어지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가 맡은 일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최상의 품질, 최고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沈사장의 경영철학과 연결된다.

오늘의 로움코리아가 요지부동의 기반을 굳히게 된 것도 이러한 경영철학에 크게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안전관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후대책에 있어서도 철저하다. 공장건물과 기계는 물론 최근 가스보험에 이르기 까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취급하는 보험에 완전 부보되어 있다고 한다.

방화관리담당 宋泰俊과장은 화보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건축, 기계, 전기, 화공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조는 세밀하고 확실하면서 미비점의 시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등 친절하게 잘해주어 방화관리자들의 업무수행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회사소개를 이렇게 했다.

『저희 회사는 1972년 7월에 저항기 제조업체로 창설되어 2개월 후인 9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해 12월 부터는 반도체부품도 함께 생산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전자부품 제조회사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생산제품 95% 이상을 일본을 비롯 구미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3년과 84년 수출의 날에는 상공부장관 표창과 석탄산업훈장을 당당히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몇번의 유희파동등 경제불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장을 비롯한 전 사원이 똘똘 뭉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저항기 부품으로서의 국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말한 宋과장의 얼굴에는 긍지와 사명감이 충만했다.

특히 이 회사는 매년 종업원을 산업체 특별학교에 취학시켜 금년 졸업생까지 총143명을 배출하였고 매일 안전부서선발, 밝은노래 경연대회, 저축상시상, 합동생일 축하회등을 열어 사기를 북돋아 줄 만큼 사원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공단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 1979년 부터 노동부가 주관, 실시하는 무재해운동에서도 지정목표시간을 2번씩이나 달성하는등 무사고 업체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같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최고 책임자로 부터 생산직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하고 작업표준 안전수칙등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등 간단없는 노력이 있었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도 로움코리아의 전 종업원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회사」와 「나」를 만들고자 열심히 또 열심히 뛰고 있다.

